

서희경, 신데렐라 탄생 예약

■LPGA KIA클래식 3R

쿵에 5타차 앞서 우승 눈 앞 위성미 3위, 신지애 공동 5위

‘국내 최강’ 서희경(24·하이트)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예약했다. 서희경은 28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의 라코스타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KIA클래식 3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4개를 몰아쳐 3언더파 69타를 쳤다. 이날까지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한 서희경은 2위 캔디 쿵(대만)에게 5타나 앞서 이변이 없는 한 우승컵을 거머쥌 가능성이 크다. 이 대회에 초청 선수 자격으로 나온 서희경은 지금까지 LPGA 투어에 다섯 차례 출전해 2009년 하와이에서 열린 SBS오픈 공동 15위가 최고 성적이다. 위성미는 이날 버디 1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3위를 달렸다. 신지애는 버디를 6개나 몰아쳤으나 12번 홀(파3)에서 더블보기가 나오는 바람에 3타를 줄이는데 그쳐 3언더파 213타, 공동 5위로 3라운드를 마쳤다. 공동 5위에는 이지영(25), 민나온(22) 등 8명이나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전날 2위에 올랐던 김인경(22·하나금융)은 6타를 잃는 부진 속에 이븐파 216타, 공동 19위로 밀렸다. /연합뉴스



전국 육상 꿈나무 광주서 힘찬 질주

30~31일 전국육상경기대회

육상 꿈나무들의 힘찬 질주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제12회 전국 꿈나무선수선발육상경기대회가 30일부터 이틀간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한육상경기연맹 주최, 광주육상경기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초등 남녀 4·5·6학년, 중등 남녀 1·2학년 600여명이 참가해 그간 닦아온 기량을 펼쳐 대다. 총 71개 종목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초등 22개 종목, 중등 49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선발기준은 종목별 1~3위까지, 1차 213명을 선정하고 2차 체력측정을 실시해 신인 발굴위원회에서 80명을 최종적으로 뽑게 된다. 꿈나무에 선발된 선수에게는 다양한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꿈나무 선수와 지도자에게 3분기 1인당 10만원씩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선발 선수들이 대표 및 후보로 승급되었을 때 대표엔 100만원, 후보엔 50만원씩의 장려금이 주어진다. 또한 이들이 한국신기록과 부별신기록을 경신했을 때 각각 포상금 100만원과 50만원씩이 지급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김연아 아쉬운 2위 시즌 마감

세계피겨선수권 아사다 우승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는 27일(한국시각) 저녁 이탈리아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6.45점과 예술점수(PCS) 65.04점, 감점 1점 등 합계 130.49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60.30점)를 합쳐 총점 190.79점으로 2위에 올랐다. ‘일본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20)가 197.58점으로 1위에 올라 2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되찾았고, 라우라 레피스토가 178.62점으로 3위에 올랐다. 김연아는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평소 보기 힘들었던 스핀과 스카이럴 등에서 실수가 나온 탓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60.30점을 받아 7위에 그쳤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부진을 딛고 좋은 연기를 펼쳐 메달을 따는 데 성공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평소 보기 힘들었던 실수를 여러 번 범한 탓에 60.30점으로 7위에 그쳤던 김연아는 이날도 몇 차례 실수를 범했지만 무리 없는 연기를 펼쳤다. 광민정(16·수리고)은 앞서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쳤지만 컨디션 저하로 제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박지성-이청용 맞대결 불발

볼턴의 이청용이 28일(한국시각) 영국 볼턴의 리복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 맨유 패트리스 에브라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기대했던 박지성과 이청용의 맞대결은 박지성의 결장으로 불발에 그쳤다. 맨유가 이날 4-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볼턴의 이청용이 28일(한국시각) 영국 볼턴의 리복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 맨유 패트리스 에브라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기대했던 박지성과 이청용의 맞대결은 박지성의 결장으로 불발에 그쳤다. 맨유가 이날 4-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광주여대 조소현 양궁선수권 우승

광주여대 조소현(3년)이 제44회 전국남녀양궁총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조소현은 지난 26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여대부 30m 개인전 결승에서 354점을 기록, 라이벌 김예슬(경희대·352점)을 제치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로써 조소현은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학선수권 양궁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할 자격도 획득했다. /연합뉴스



최성국 결장...광주 제주와 비겨

쏘나타 K-리그 2010 5R

전남은 강원예 2-5 대패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가 1승 사냥에 실패하며 우울한 휴일을 보냈다. 광주는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쏘나타 K리그 2010 5라운드 제주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광주는 최성국과 주광윤이 경고누적으로 결장한 상황에서 선전을 펼쳤으나 득점에 실패, 4경기 연속 무승으로 1승2무2패에 그쳤다. 양 팀은 전반에 치열한 미드필드 싸움과 함께 팽팽히 맞섰고 비록 골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광주가 득점찬스를 많이 만들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는 전반 17분 정경호가 골문 중앙 25m 지점에서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슛을 날렸지만 골키퍼 김호준의 선방에 막혔다. 또 광주는 전반 39분 정경호의 패스를 받은 서민국이 페널티 박스 내 우측에서 오른발 슛을 연결했지만 재차 김호준에게 잡히며 어렵게 선제골 찬스를 놓쳤다. 후반들어서도 양팀의 공방은 계속되었지만 골과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결국 두 팀은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전남은 이날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강원 FC와의 원정경기에서 지동원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2-5로 패하고 말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즌 끝낸 피겨퀸의 선택은?’

김연아가 2009-2010 시즌을 모두 끝내면서 앞으로 거취에 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즌 종료 김연아 '안갯속 진로'>= 김연아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끝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지금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워낙 큰일을 해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길을 갈지 나로서

도 궁금하다.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갈 길은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김연아가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올림픽에만 전념하고 달려왔던 숨 가뻐던 피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여겨지거나 흘러나오기까지 했다. <플루센코의 교훈 '은퇴가 끝은 아니

다’=러시아의 ‘피겨황제’ 예브게니 플루센코가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 이후 은퇴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연말 현역에 복귀했다. 그뿐 아니다. 지난 2008년 허벅지 통증으로 은퇴했던 스테판 람비에도 아이스쇼에 전념하다가 지난해 복귀를 선택해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나섰다. 김연아로서도 아이스쇼 무대를 통해 정신적 긴장감을 잠시 누그러뜨리고 나서 다시 경쟁의 무대로 돌아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도전하는 것도 선수 생활을 길게 이어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연합뉴스

면면 정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p>1.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p> <p>2. 면적: 100㎡</p> <p>3. 용도: 주거용</p> <p>4. 가격: 1억 5천만 원</p>	<p>1.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p> <p>2. 면적: 80㎡</p> <p>3. 용도: 주거용</p> <p>4. 가격: 1억 2천만 원</p>	<p>1.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p> <p>2. 면적: 120㎡</p> <p>3. 용도: 주거용</p> <p>4. 가격: 1억 8천만 원</p>
---	--	---

문의: 010-1234-5678